

유럽

○ 튀르키예, '앙카라 테러' 관련 쿠르드노동자당(PKK) 조직 공습

- 10.24 언론은 튀르키예군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주 활동지역인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등 표적 32개에 대해 군 항공기로 폭격했으며, 이번 작전은 앙카라의 방산업체에 테러가 발생하고 몇 시간 뒤 이루어졌다고 보도
- ※ 「앙카라 테러」는 앙카라 북쪽 카흐라만카잔에 있는 항공우주산업(TUSAS) 시설에 무장괴한 2명의 총격테러로 5명이 사망, 22명이 부상했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됨

○ 노르웨이, SNS 이용 연령 13세→15세로 상향 조정

- 10.24 언론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에서 'SNS 연령 제한법'을 추진하고 있으며, 노르웨이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현상이나 관련 폭력·혐오 사건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목적으로 SNS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
- ※ 프랑스·호주 또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우리나라는 SNS 이용시간 제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

○ 독일·이란, 테러 혐의 이란계 독일인 사형 집행으로 충돌

- 10.30 언론은 이란이 29일 '14명 사망' 모스크 테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이란·독일 이중국적자 「잠시드 샤르마흐드(69)」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과 독일 양국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
- ※ 이란은 同人이 美 CIA와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
→ 최근 중동·유럽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동향 및 재외국민 안전 상황 예의주시 필요

미주

○ 美검찰, 테더코인 자금세탁의혹 수사 착수

- 10.27 美검찰은 가상화폐 업체 테더의 국제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, 테더가 발행한 코인이 제3자에 의해 마약거래, 테러, 해킹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

○ 볼리비아, 무장 괴한에 의해 前 대통령 탑승 차량 피격

- 10.28 언론은 볼리비아 前 대통령 「에보 모랄레스」가 탑승한 차량이 무장괴한 4명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, 「에보 모랄레스」는 자신은 맞지 않았지만 차량에서 총알 14발이 확인됐다고 하며 現 대통령인 「루이스 아르세」를 배후로 지목

※ 언론은 볼리비아의 전·현직 대통령은 같은 당 출신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으나, 지난해 사이가 틀어진 이후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이스라엘, 트럭의 버스정류장 돌진으로 35명 부상

- 10.27 언론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버스정류장에 트럭이 돌진하여 최소 35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중태에 빠졌으며,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의성이 있는 테러공격으로 분류했다고 보도

※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수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한 차량돌진 등의 공격이 수십건 벌어졌다고 부언

○ 헤즈볼라, 신임 지도자에 30년간 2인자 「카셈」 선출

- 10.29 언론은 레바논 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한달여간 공석이었던 수장 자리에 「나임 카셈(71세)」 사무차장을 선출하였다고 전하는 한편,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사상자가 급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FATF,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 조정

- 10.27 언론은 FATF가 韓의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했으며, 반면에 북한은 자금세탁·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보도

※ 이번 등급 상향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도입한지 23년만에 모범국으로 공인 받은 것이라고 부언

시나이發, 러시아 여객기 폭탄 테러 사건

- '15.10.31 이집트 샤름엘셰이크發-러시아行 항공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 상공에서 공중 폭발, 탑승자 224명 전원 사망
 - * 탑승객 대부분은 러시아인(219명), 기타 우크라이나·벨라루스인 포함
 - 사건 직후, ISIS-시나이지부는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다며, '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것에 대한 보복'이라고 주장
 - 한편, '15.11.17 러시아 연방보안국도 '블랙박스 및 기타 사고조사 확인 결과, 항공기는 폭탄 폭발이 주 원인'이라고 공식 발표
 - 푸틴 대통령은 기한 없는 범인 색출 작업 지시와 함께, 테러 관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발표 및 사건 다음 날 11.1을 추도의 날로 선포
- ⇒ 최근 인도 포함, 항공기 대상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등 항공기에 대한 안전활동이 강구되어야 하며, 항공기·공항시설 이용시 각별 유의 요망됨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ISIS-시나이 지부(ISIS-SP) >

- (목표) 이집트內 군부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14.4), 영국('14.4), 호주('16.11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부 하자르 알 하셰미」 ('18.11 선임)
- (결성·규모) '11년 '아랍의 봄' 계기, 팔레스타인에서 유입된 지하디스트(150여명)와 시나이반도內 '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' 조직원(600여명) 중심으로 결성, 1,000여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ISIS
- (주요테러) '14.2 이스라엘 접경 시나이반도 '타바' 아국인 성지순례객 탑승버스 자폭 테러(우리국민 3명 및 이집트인 기사 사망, 15명 부상)
 - '17.11 시나이반도 알아베드 수피교 사원 폭탄테러(305명 사망, 128명 부상)
 - '22.5 시나이반도내 우에즈운하 펌프시설 습격(11명 사망)